

머리말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일본과의 기술 네트워크 형성이란 설명 요인을 통해 분석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의 일본과의 기술 네트워크 형성」 연구회(2009년도부터 2010년도, 미즈노 준코 주사)의 첫 년도의 성과이다.

2008년 2월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해 4월의 첫 방일을 앞두고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일 무역적자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양국간에서 논의되고 각종 대책이 강구되어 온 문제다, 그러나 제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제품 기술이나 설비 및 부품 등을 일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생산을 하여 수출을 하는 한국의 경제구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과제이다.

지금까지 대일 무역적자는,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이 취약하여 일본에서의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일본의 중소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현지생산을 함으로써 대일 무역적자 문제는 해소된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회는 제 1 장에서, 적자의 원인은 일본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소재」 보다 일본의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구체적으로는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을 포함한 기계 기기류가 금액으로는 많다는 것, 그리고 수입 주체도 한국의 대기업임을 밝혔다. 이로 인해 일본의 중소기업이 한국에 진출해도 눈에 보이는 적자 삭감 효과가 없을 것임을 제시했다.

다음에 제 2 장 및 제 2 장의 보론에서는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주요 제품은 반도체, 철강제품, 설비기계 등으로, 특히 한국의 대기업이 일본의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잇따라 도입하여 그것을 제품으로서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제품(설비기계, 원재료,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 적자의 커다란 요인이 되어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제 3 장에서는 제 2 장의 가설을 바탕으로, LCD 패널을 예로 들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LCD 패널은 제조설비, 원재료, 부품 등 모두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제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당초에는 대일적자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이 국산화에 협력하여 한국에 진출한 것도 있어 적자가 감소되어가고 있음을 분석 결과 알게 되었다.

보론에서는 제 2 장에서 철강 수입이 일본에서의 주요 수입품의 하나임이 제시되었으므로 한국의 철강산업의 근년의 생산 증강에 대해 현상을 조사해 봤다.

금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는 연구대상 범위를 넓혀서 검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과, 본 보고서 및 통계·자료 작성을 도와주신 나이토 마유미씨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2010년3월31일

편자